

(주)태왕, 조합 가압류... 조합원 가정 '풍비박산'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가로주택 조합 임원, 태왕 가압류 횡포 조합원 가족 병원 수술... 분노 조합 측, "태왕 경기불황으로 발 빠는 순서 절차라고 맹폭"

대구시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성난 민심이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주)태왕이앤씨가 조합과 임원들을 상대로 금융, 주택가압류를 했기 때문이다.

조합장과 임원들은 태왕의 가압류조치는 사실상 횡포라고 항거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꿈에 부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사 측의 가압류로 내 집 빼앗길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맹폭을 가했다.

대구광역일보에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태왕과 조합 측 사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집중 보도한다.

봉덕동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을 맡은 회사는 태왕이앤씨다.

태왕은 2023년 7월 31일 국토부 평가 건설도급순위 67위이다. 이 회사는 2021년 7

월 15일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조합 측과 시공사 선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태왕이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조합원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태왕 측은 몇차례에 걸쳐 봉덕동 6단지 조합 측에 대여금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 독촉권을 보냈다. 조합 측도 태왕의 대여금 부당지급의 회수독촉권에 회신을 발송했다.

회신내용에는 "조합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현재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압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태왕 측이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가압류에 나서자 한 조합원 가족은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당하자 병원에 입원, 심근경색으로 2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봉덕동에서 대대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태왕의 이 같은 행위는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가압류당한 조합 임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혼소송을 하는 등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부동산 활황기가 만나 급증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봉덕동 6단지 조합 측은 이러한 원인을 "분양시장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 미분양 증가로 태왕이 발 빠려는 수순을 밟는 절차"라고 빼이는 말을 했다.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 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다. 김성용 기자



2024 제10회 대구광역일보배 전국 아마골프 대회 전국 최고 대회로 우뚝

초등부 우승 강에서 대청초 5년, 중등부 우승 상현준 경산중 3년, 고등부 우승 오현아 달서고 1년

관련기사 & 화보 3·4·5

봄을 일태한 '2024 제10회 대구광역일보배 전국 아마골프대회'가 막 내렸다.

대회는 지난달 26일 경주 신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304명(학생부 포함)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봄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차디찬 바람이 맹위를 떨쳤다. 선수들은 추운 날씨에 고전분투했다. 선수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켜는 봄 잔디를 밟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경기는 학생부(초·중·고) 스트로크 플레이(혼자타 경기), 일반부 스트로크·신체리오플레이 방식으로 동시 출발(샷간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5년 만에 출현한 나옴다. 주최 측이 지정한 13번 홀에서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컸다.

출현의 주인공은 영덕군 영해면에서 출

전한 강명옥(여) 선수가 화랑 16번 홀에서 터졌다. 강선수에게 혼마캐디백을 안겼다.

▣학생부 초등부 우승 강에서

학생부 선수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학생부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열렸다.

남·여 통합 초등부 영예의 우승은 76타를 기록한 강에서 선수(대청초등 5년)가 차지, 장학금 50만원과 경북교육감상을 받았다.

강 선수는 부산에서 출전했다. 강 선수는 버디는 놓쳤지만 파 15개, 보기 2, 더블보기 1개를 기록했다.

준우승은 포항 문덕초등 6학년 이재륜 선수가 차지, 장학금 30만원과 경북교육감상을 받았다. 이 선수는 8타를 기록, 버디 1, 파 11, 보기 3, 더블 2개의 성적을 냈다. 3위는 8타를 친 경주 나일초등학교 4년 김지아 선수가 차지, 장학금 20만원과 경북교육감상을 받았다.

김 선수는 파 7, 보기 10, 더블 1개를 기록했다.

▣중등부 우승 상현준

중등부 우승 영예는 72타의 성적을 낸 상

현준 선수에게 돌아갔다.

상 선수에게는 경북교육감상과 장학금 50만 원을 받았다. 대구 경산중 3학년이 재학 중이다. 상 선수는 무려 버디 6, 파 8개를 잡았다. 이렇게 보기 3개를 기록했다.

준우승은 73타를 기록한 이예원 학생이 차지(경북교육감상 장학금 30만 원) 했다. 이 선수는 버디 1, 파 15, 보기 2를 기록했다. 3위는 대전 대덕중 3년에 재학 중인 정진수 선수(경북교육감상 장학금 20만 원)가 차지했다. 75타를 기록한 정 선수는 버디 2, 파 12, 보기 3, 더블 2개의 성적을 냈다.

이 선수는 버디 1, 파 15, 보기 2를 기록했다. 3위는 대전 대덕중 3년에 재학 중인 정진수 선수(경북교육감상 장학금 20만 원)가 차지했다. 75타를 기록한 정 선수는 버디 2, 파 12, 보기 3, 더블 2개의 성적을 냈다.

이 선수는 버디 1, 파 15, 보기 2를 기록했다. 3위는 대전 대덕중 3년에 재학 중인 정진수 선수(경북교육감상 장학금 20만 원)가 차지했다. 75타를 기록한 정 선수는 버디 2, 파 12, 보기 3, 더블 2개의 성적을 냈다.

이 선수는 버디 1, 파 15, 보기 2를 기록했다. 3위는 대전 대덕중 3년에 재학 중인 정진수 선수(경북교육감상 장학금 20만 원)가 차지했다. 75타를 기록한 정 선수는 버디 2, 파 12, 보기 3, 더블 2개의 성적을 냈다.

이 선수는 버디 1, 파 15, 보기 2를 기록했다. 3위는 대전 대덕중 3년에 재학 중인 정진수 선수(경북교육감상 장학금 20만 원)가 차지했다. 75타를 기록한 정 선수는 버디 2, 파 12, 보기 3, 더블 2개의 성적을 냈다.

이 선수는 버디 1, 파 15, 보기 2를 기록했다. 3위는 대전 대덕중 3년에 재학 중인 정진수 선수(경북교육감상 장학금 20만 원)가 차지했다. 75타를 기록한 정 선수는 버디 2, 파 12, 보기 3, 더블 2개의 성적을 냈다.

105년전 그날 목놓아 대한독립만세 외쳤다

무궁화 우리나라꽃 3·1절함성 대구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류규하 중구청장, "우리 역사 바로 알리고 나라 사랑 정신 드높이는데 최선 다하겠다"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1일 대구지역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이날 오전 10시경 대구시 중구 동산동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 역사와 문화의 향연을 높이기 위한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행사는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 류규하 중구청장, 보훈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많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해 우리 근대역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하늘은 맑았지만 쌀쌀한 날씨

에 구경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였다. 행사장 곳곳에서 열린 바깥개비 태극기 만들기, 독립선언문 탁본, 태극 문양 타투스티커 나눔 등 이벤트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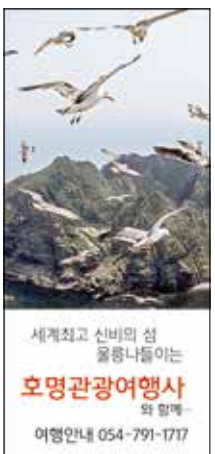
북소리와 춤으로 표현한 신명 나는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으로 3·1절 기념식이 시작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윽고 시민들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우렁차게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기억하자 가슴 뜨거웠던 3·1만세 운동'을, '그날의 함성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진다' 등이 적힌 피켓이 돋보였다.

행진은 청라언덕→3·1만세운동길→이상화 고택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 만세삼창을 외칠 때마다 태극기는 더 힘차게 팔려갔다.

목놓아 만세를 외치던 김무성(61)씨는 "만세운동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애국지사들이 부르짖은 우리 민족의 외침"이라며 "전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행진하는 동안 함창에 외쳤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단체장 일정



류규하 중구청장은 4일 오후 세븐벨리CC에서 열리는 중구골프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4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SJ 대구달성산림조합 (금융)

나무전시판매장 개장

산림조합에서는 믿고 구입 할 수 있는 우량한 나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금·적금·대출은 산림조합금융으로!!

회원본점 : (053) 616-7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0 (지하철1호선 중점 설화명곡역 4번 출구)

대명지점 : (053) 656-0651

대구시 남구 대명서로 166, 2층 (관문시장 입구)

사유림 산주의 산림경영을 도와드립니다!

기간 : 2024년 2월 23일~4월 5일

품종 : 유실수, 조경수, 특용수, 화훼류, 비료 등 / 장소 : 대구달성산림조합 본점 주차장 T.616-7000, 616-2277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암로 10(설화리 556-28)

T. 616-7000

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 중점역 4번출구 앞

조합원님께는 구입한 금액의 10%할인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3월 4일 월요일 2



홍준표 “동대구역 광장→박정희 광장 명명 검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은 어떠한 검토 중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이자신

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달빛철도 축하 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

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며 “대구시를 돌아보니 대구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참 유감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대구·광주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목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참 많다”고 했다.

수성구의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시민단체 “염치없다”

의정활동비 인상 지역직장인 평균 연봉 3500여 만원 상회 연간 4650만원 이상 받게 돼

매년 초 부실한 의정활동을 보이는 대구 수성구의의회가 의정 활동비를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수성구의의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오는 5-11일까지 임시회를 연다.

이 기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및 개정안은 9건이다.

발의에 나선 의원은 김중균, 남정호, 정경은, 정대현, 박새롬, 백지은 등 21명 중 총 6명이다.

5분 발언은 7차례, 집행부를 향한 질의는 김재현 의원이 1차례 각각 진행했다.

3월 임시회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수성구의의회 공식 일정이자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기다.

지난 1,2월에 진행된 의회 주최 행사 등 공식 일정은 없었다.

회기가 없고 공식 일정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수성구의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1월과 2월 각종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장단 활동비(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러한 행태는 수년간 반복되는 중이다.

올릴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비 150만원으로

의정 활동비는 재정 능력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성구의의회는 법정 한도액인 150만원 이내로 증액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념 구분이 모호하지만 사용 내용을 증빙할 의무는 없다.

전년 대비 4.79% 증가한 수성구의 올해 예산은 8500여 억원 규모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45%)보다 낮은 24.1%다.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150만원 이내 지급과 관련된 주민공청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에 범어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 대구 수성구의의회 의원 한 명이 받은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활동비 개념인 의정 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연 4170여 만원 수준이다.

의정 활동비가 인상되면 대구지역 직장인 평균 연봉은 3500여 만원을 상회하는 연간 46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군위군 아동, 희망가득 등곳길” 군위군은 지난달 29일 이마트 성서점,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 저소득계층 아동 50명에게 책가방 및 학습품 8종을 전달했다. 행사는 이마트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희망배달마차 사업이다. 군위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공)

대구시, 지역 글로벌대학 지정 총력 지원

글로벌대학 지원단 구성·운영 지역산업 성장연계 방안 논의

대구시가 지역대학 글로벌대학 지정에 총력을 쏟는다.

교육부가 ‘2024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을 발표,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을 발 빠르게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대학30 지정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신청 대상 대학 166교 중 65%인 108교가 신청, 10개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10개교를 지정,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한다.

2024 군위형 마을만들기 갈수록 뜨거운 열기 더해

군위군이 군위형 마을만들기 새싹마을 리더 워크숍을 가졌다.

행사는 지난달 29일 효령면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새싹마을리더, 공무원, 군위군 농촌활력지원센터, 기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첫선 보인 ‘군위형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형 단계별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3월, 73개의 씨앗마을을 선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12월,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대상인 새싹마을 62개를 최종 선정했다.

새싹마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앞에 앞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갈지마을 박성제 추진위원장의 마을만들기 특강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장의 군위형 마을만들기 추진상황 및 일정 보고 △군위군 농촌활력센터 사무국장의 새싹마을 사업추진 세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군위군은 지난해 씨앗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끝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뜨거웠던 열기를 더해 올해는 사업추진 체계를 다양화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더욱더 확대한다.

지난해 지정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학이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경북대, 계명대, 대구교대, 대구보건대 등 4개교가 신청했으나 아쉽게 글로벌대학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올해는 경북대, 대구교대를 비롯해 계명대(계명문화대와 통합신청),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교, 영남이공대(영남대와 통합신청) 등 대구지역 8개교가 글로벌대학에 도전장을 내민다.

대구시는 ‘2024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이 발표되자 속도감 있게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을 구성해 지역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한다.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은 3월 신설되는 대학정책국의 국장을 단장으로 미래혁신성장실 8개

부서를 비롯, 대구시 15개 부서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이 주축이 되며, 지난달 29일 1차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글로벌대학 지정 공동 대응을 위해 시, 대학,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청대학 개별 컨설팅은 물론 대구광역시 발전 전략 및 지역산업 성장계획과 연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한다.

글로벌대학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실현할 인적·물적 지원의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글로벌대학이 지향하는 지역 밀착형 혁신전략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며 지역의 세계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역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 지원은 물론, 혁신전략을 강화, 대학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공 ‘약산온천지구’ 30년 만에 해제

달성군, 지역개발 사업화로 지역발전 ‘청사진’ 그린다

달성군 농공읍 상·하리 일대 지정되었던 약산온천지구가 완전 해제됐다.

농공읍 상·하리 지역은 1994년 약산온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됐다.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999년 온천개발계획까지 수립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방치, 주변 미관을 해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주민

들의 온천해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은 지난해 5월 약산온천지구 지정 해제 용역을 착수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주민 수렴의견을 기반으로 대구시에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결과, 지난달 29일 마침내 약산 온천지구가 지정된 지 30년 만에 해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로 지역개발 사업의 활로가 열렸다. 농공읍 상·하리 지역이 그동안 온천원보호지구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신속하게 지역발전 청사진을 그렸다”고 밝혔다.

금호강변 제방 뱃나무길 맨발산책로 조성

공항공~화랑교 3.37km 구간

동구청은 최근 건강과 관련한 맨발걷기 열풍에 발맞춰 공항공부터 울하천교 독일 일대 5.24km에 맨발걷기 산책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25억이다. 잔여 구간인 화랑교부터 울하천교(1.87km) 구간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금호강변 뱃나무길 맨발산책로는 계절마다 바뀌는 금호강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맨발걷기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최근 건강과 관련한 맨발걷기 열풍에 발맞춰 공항공부터 울하천교 독일 일대 5.24km에 맨발걷기 산책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25억이다. 잔여 구간인 화랑교부터 울하천교(1.87km) 구간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한다.

일부 완료한 구간은 공항공부터 아양교(1.17km), 아양교부터 화랑교(2.2km) 등 3.37km다. 해당 구간은 기능성 마사토를 사용한 산책로와 이벤트길, 세족장, 화장실 종합안내판 등 편의 시설을 갖췄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금호강변 뱃나무길 맨발산책로는 계절마다 바뀌는 금호강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맨발걷기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

교육문화·산업 인프라 연계 지역인재 정주 환경 만든다

수성구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주도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 사업이다.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된다.

1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수성구는 대구시, 대구교육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광역단위 2 유형으로 공동 신청했다.

수성구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으로 △공동 주택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거주자 돌봄 확대 △지역 자원 연계 학교 밖 청소년 대안 교육 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연계 IB과정 자율학교 운영 △수성미래교육관 연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인재 정착 및 해외 인재 유치 위한 경북대학교 수성캠퍼스 시민공유 캠퍼스 조성 등을 제안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학생이 원하는 다양성을 갖춘 교육시스템을 확립, 수성구의 교육문화·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 인재 정주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g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 | | | | | | | |
|------|--------------|-------|--------------|-----|--------------|-----|--------------|
| 대표 | 053-257-9000 | 경영지원국 | 053-257-5000 | 광고국 | 053-257-0800 | 문예부 | 053-253-0065 |
| 부사장 | 053-254-0500 | 기획조정실 | 053-257-0600 | 사회부 | 053-253-0060 | 지방부 | 053-253-0064 |
| 편집국장 | 053-257-0200 | 인원실 | 053-257-0700 | 정경부 | 053-253-0061 | 편집부 | 053-253-0063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달리스트...박선곤·최선례 내가 바로 그린 위 검투사다

남 메달리스트 박선곤 67타
여 메달리스트 최선례 70타
남 신페리오 우승 윤성욱
여 신페리오 우승 윤채영
홀인원 강명욱 최고 영예

추운 날씨에도 참가선수들의 샷은 '명품'이었다.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은 한 줄 한 줄마다 신중히 치러냈다.

선수들은 그린 위 홀킵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퍼터를 했다. 홀킵에 빨려 들어가자 선수들은 "버디 잡았다"라고 환호했다.

대회를 지켜보는 경기위원들과 캐디들도 선수들을 격려했다.

경기위원들은 대회가 열린 경주 신라 컨트리클럽 화랑·천마 코스를 돌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무엇보다 경기 도중 성적조작 있을까 일일이 기록표 점검하는 열정도 보였다.

여자부 메달리스트 최선례

여성 챔피언은 최선례 선수가 차지, 영광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 선수는 △제6회 대회 메달리스트 △제7회 대회 신페리오 여자부 우승 △제8회 메달리스트 이번 대회 메달리스트를 거머쥔 무만 파워를 자랑하는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다.

경기도 시흥에서 출전한 최 선수는 대회에서 2언더를 기록, 70타를 쳤다.

그는 버디 7개, 파 8개, 보기 1개, 더블 보기 2개의 성적을 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린 최 선수는 5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과 ATPGA(아시아투어 프로골프협회)에서 선사한 프로자격증을 주최 측에 반납, 참가선수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최 선수는 "다음 대회에 우승하면 시상품을 주최 측에 반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대구광역시 사랑 나눔 대 바자회 행사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실천했다.

남자부 메달리스트 박선곤

남자 메달리스트는 5언더 67타를 기록한 박 선곤 선수가 차지, 우승 트로피와 5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과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에서 수여한 프로자격증을 부상으로 받았다.

부산에서 출전한 박 선수는 대회 처음 참가, 메달리스트를 따냈다.

박 선수는 버디 9, 파 6, 보기 2개를 기록, 파 버디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 선수는 "치녀 출전 참가명단에 올랐는데 뜻하지 않게 메달리스트라는 우승컵을 안아 너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남 신페리오 우승 윤성욱

신페리오 방식으로 열린 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은 울산에서 참가한 윤성욱 선수가 차지했다.

윤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핸디캡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경기의 결과로 나온 타수)85타, 넷트 스코어(net score=골프에서 1라운드 타수의 총계에서 자기 핸디캡을 뺀 스트로크의 수)68.2타를 기록했다.

윤 선수는 우승 트로피와 존 바이런 폴셋을 부상으로 받았다.

윤 선수는 대회에서 버디 1, 파 7, 보기 6, 더블보기 4개를 기록했다.

준우승은 경주에서 참여한 김진환 선수가 차지했다.

김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79타, 넷트 스코어(net score) 69.4타를 기록, 부상으로 트로피와 마루망 아이언 세트를 받았다.

남자부 3위는 한태규 선수에게 돌아갔다. 부상으로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받았다. 한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90타, 넷트 스코어(net score) 70.8타를 기록했다.

여 신페리오 우승 윤채영

여자부는 구미에서 참가한 윤채영 선수가 영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윤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82타, 넷트 스코어(net score) 71.2타를 기록했다.

윤 선수는 우승 트로피와 존 바이런 폴셋을 가슴에 안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는 버디 2, 파 5, 보기 10, 더블 1개를 기록했다.

윤 선수는 대구광역시배 배 골프대회는 처음이다.

준우승은 경주에서 참여한 김은향 선수가 차지했다.

김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88타, 넷트 스코어(net score) 71.2타를 기록, 부상으로 트로피와 마루망 아이언 세트를 받았다. 3위는 박태분 선수에게 돌아갔다.

부상으로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받았다. 박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94타, 넷트 스코어(net score) 71.2타를 기록했다.

대회에서 공교롭게도 여성부 △우승 △준우승 △3위 모두 넷트 스코어(net score) 71.2타를 기록했다. 주최 측은 백 카운트(Back Count)를 적용했다.

남·여 최고 장타자 강덕선·김규리

롱기스트 상품은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내걸었다.

일반부 남자 최고 장타자는 주최 측이 지정한 화랑 OUT 코스 4번 홀 파5에서 256m를 기록한 강덕선(영덕) 선수가 과력을 발휘, 부상으로 트로피와 드라이버를 받았다.

여자부 최고 장타자는 210m를 기록한 김규



리 선수가 차지, 부상으로 트로피와 드라이버를 받았다.

이호중·김보경 남·여 니어리스트

남자부 니어리스트는 주최 측이 지정한 화랑 화랑 OUT 코스 13번 홀 파3에서 1m 30cm 기록한 이호중(부산), 여자부는 홀킵에 1m 90cm를 붙인 김보경(경주) 선수가 차지했다.

두 선수 모두 트로피와 존 바이런 퍼터를 손에 거머쥐었다.

다 버디 및 최다 타상

다 버디 상은 버디 6개를 기록한 이상일(대구), 다 파상(16개) 이종원(구미), 다 보기(17개) 강명욱(서울), 노력 상은 이태환(대구)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와인과 골프공 등 푸짐한 상품을 전달했다.

시상식 및 화려한 축하공연

시상식과 만찬 행사는 경주 더케이호텔 2층 거문고실에서 열렸다. 사회는 김용일 삼성 라이온즈 장외어나운서가 맡았다.

시상식과 공연이 시작된 저녁 5시 30분 참가자들은 열광했다. 대회 10년을 기념하는 자리여서인지 참가자와 주최 측은 들떠있었다.

가장 뜻깊은 행사는 10년 연속 대회에 참가한 정영숙(여·울산) 선수에게 전하는 감사패

였다.

10년 연속 참가했다는 사회자 말에 참가선수들은 우아하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사회자는 "정영숙 선수에게 대구광역시배 전국 아마골프대회 10년간 참가해준 정영숙님께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10년 세월 당신이 있어 늘 든든했습니다. 함께 웃고 웃었던 모든 일을 이 때에 담아 드립니다. 정영숙이라는 이름 석 자를 대구광역시배는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낭독했다.

트로트계에 손꼽히는 가수 소명, 텔런트 이영범·최준용, 가수 안계범·백봉기·이태환·신비·골드가 나와 무대를 누비고 다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빠이빠이', '유쾌통쾌상쾌', '최고친구'를 불러 참가선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대구광역시배는 대회 참가한 선수 모두에게 △양주다이아몬드 기초화장품 6종 세트를 안겼다. 대회 10주년 기념 행운상도 참가자 모두에게 전달했다.

아쉬움을 남기고 폐막한 '2024 제10회 대구광역시배 전국 아마추어골프대회'는 내년 대회를 기약하며 작별을 고했다.

꿈나무 육성이라는 구호를 내건 11회 대회는 2025년 2월 24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에서 막 오른다. 김성용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전선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대구광역시보와 함께한 그린 위 10년 세월 당신들이 있어 참 따뜻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김경길 경주시 체육진흥과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10년 연속 참가한 정영숙씨



제10회 대구광역시보 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10년연속 참가 정영숙님 고마움 담은 감사패전달 소리를 내 웃은 추억시간 참가선수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을 바라보며 내년 2월24일 또 만나요



출원원 상





경주시 현곡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계몽운동

경주시 현곡면 행정복지센터는 얼마전 경주현곡푸르지오 주민들과 함께 제105주년 3·1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계몽운동을 가졌다.

계몽운동은 김용구 하구4리 이장, 장봉근 하구5리 이장, 경주현곡푸르지오(임주자대표회의회장 한정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민족자존과 국권회복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태극기의 올바른 계양과 관리를 위한 홍보를 위해 어깨띠를 착용, 주민들이 계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및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 홍보 자료를 배부했다.

경주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매력 전 세계에 알렸다

경주시,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 베스트 세계유산도시와 축제 대상

경주시가 아시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베스트 세계유산도시와 축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달 28일 전남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 파나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 도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수상했다.

또 이날 '세계유산도시 경주, 축제도시 경주'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행사는 아시아권 축제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매년 개최된다. 세계축제협회(IFEA World)는 우수 축제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45개 도시에서 250명

이 참석했다. 경주시는 타임머신을 타고 아름다운 밤거리를 즐기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과 미디어·IT기술을 대용원 고분에 접목한 미디어아트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높이 평가됐다.

벚꽃축제(봄), 술술페스티벌(여름), 신라문화제(가을), 제야의 행사 및 문무대왕릉 해룡 일출 축제(겨울) 등 다채로운 사계절 축제가 모범 사례로 꼽혔다. 행사기간 경주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참석자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주낙영 시장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는 천년고도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 K-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29일 행사 종료 후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주시, 2024 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대상 지역 본사 둔 중소기업 기업 당 연 최대 4000만원 지원

경주시는 오는 19~27일까지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22곳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올해 초 중소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e-모빌리티 부품산업의 전환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자원순환 활성

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미래차 전환에 따라 지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를 주도할 자동차 부품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공모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 최대 4000만원(자부담 10%) 이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신기술·신제품 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유망기업 전문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신청대상은 경주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의 전락소재를 적용해 e-모빌리티 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인터넷으

로만 가능하다.

경주시와 사업 수행기관인 경북TP에서는 사업의 이해도 제고와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일 경북TP 미래차첨단소재성형 가공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

접수된 업체는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협약체결 후 사업을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TP 미래차첨단소재성형 가공센터(054-750-3704)로 문의하거나, 경주시청 누리집(경주소식/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참석자들은 회의 종료 후 유관기관의 염원을 담아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계몽운동도 곁들였다.

경주시 내남면,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지원

경주시 내남면은 이조천 일대에서 내남면민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4 정월대보름 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마쳤다.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내남면 체육회(회장 박효상)의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함께 실시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지신밧기, 면민들의 각자 소원을 담은 소원지 달기, 면민의 무사안녕과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기원제,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소고기국밥 등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며 추운 날씨에 면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박효상 내남면 체육회장은 "오늘 정월대보름 뜻깊은 날을 맞아 달집태우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바쁜 와중에도 준비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동원 내남면장은 "오늘 달집태우기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돼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행사를 준비한 체육회와 자리를 빛내주신 면민들께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사진 경주시제공

보덕동 새마을부녀회, 새봄맞이 환경정비

깨끗한 보덕동 환경정화 버려진 생활쓰레기 수거

경주시 보덕동 새마을부녀회원 10여 명은 지난달 27일 북군동 식당가 및 펜션마을 일대에서 환경정비를 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설 연휴 이후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저분해진 북군동 도로변 및 마을 구석구석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경주시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캠페인을 병행했다.

김화경 회장은 "연일 보덕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조 보덕동장은 "봄을 맞이해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부녀회 회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깨끗한 보덕동을 위해서 환경정화 활동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주민설명회 성료

모화 1·3리, 남산동, 하동지역 주민대상 27,28일 이틀간 진행

경주시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27, 28일 이틀간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모화1·3리는 외동 모화1리 마을회관, 남산동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하동은 불국동 하동마을회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주시와 서라벌도시가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이 궁금한 점에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주시 관계자가 지난 27일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모화1,3리·남산동·하동지역은 사업비 75억 2200만원(도·시 65%, 서라벌 35%)을 들여 올 12월까지 552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한다. 사업규모는 △모화1·3리(공급관 7km) △남산동(분관 2.7km, 공급관 7.1km) △하동(분관 0.1km, 공급관 4.4km) 등 총 21.3km로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다.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3월 4일 월요일 7



영천시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정책과 업무 성과 등을 심사한 결과다. 도내

영천시 '지자체 혁신' 평가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시 단위 중 우수 지자체는 영천이 유일하다. 최기문(사진) 시장은 "시민 중심의 정책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주

민소통, 민관협력 활성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고리 프로젝트 등 청년들과 소통·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동감자간담회'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했다. 농식품 수출개척단을 꾸려 영천 마늘의 대미수출 판로 개척, 민원서비스와 행정 윈스팀 시스템 등이 성과로 꼽혔다. 최은하 기자

봉화 한국펫고, K-펫 시장 이끄는 한국 최고 고교...

반려동물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경북도교육청, 60개 기관 협약

경북교육청이 봉화군에 있는 한국펫고등학교의 반려동물 분야 특성화고 지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교육청과 경북도, 봉화군, 경북도의원, 봉화군의원, 공공기관, 대학교, 관련 기관, 반려동물 산업체 등 총 60여 개 기관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육청-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올해 10개 내외, 2027년까지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4~5월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45억 원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자율성, 교육부의 중등 직업교육 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따른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시대를 맞아 한국펫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앞으로 글로벌 K-펫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반려동물 분야 특성화고로 도약할 것"이라며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 무섬마을 자전거길, 3월 여행하기 좋은 곳 선정

영주, '3월 여행가는 달' 미식투어 뽑혀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볼거리·먹거리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3월 가볼만한 곳'에 경북 영주 무섬마을 자전거 길 선정됐다. 영주는 '3월 여행가는 달' 충청경북 미식투어 사업에 뽑혔다. 한국관광공사는 3월 추천 가볼만한 곳 테마로 '봄날의 자전거 여행'을 선정하고, 영주 무섬마을 자전거길 등 5곳을 추천했다. 영주 자전거 길은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무섬마을 자전거길은 도심에서 서천 물길을 따라 무섬마을에 도착하는 3~4구간(약 15.4km)이다. 서천 변을 따라 이동하면 조선시대 외국 제민루, 정도전 생가로 알려진 삼판서 고택 등 명소를 만난다.

자전거길 곳곳에 소박한 마을과 나무가 우거진 자전거 전용 데크가 이어진다.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3월엔 여기로(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3만 원에 교통, 식사, 관광지 입장을 포함한 혜택을 제공한다. 3월엔 여기로 '충청경북 미식투어 테마로 완성된 영주여행은' '술기로운 여행생활 영주편' 상품이다. 영주여행은 훈연된 맛이 일품인 영주향정사탕밥과 숨겨진 미식인 영주묵밥을 맛보고, 한국관광 100선인 부석사 관광과 발효체험학교에서 막걸리 만들기를 체험하는 당일 기자회견 코스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KTX-이음'이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됨에 따라 영주시는 철도를 이용한 당일 여행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영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영주반편 관광택시, 영주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 무료 지원 등을 꼼꼼히 챙겨 보다 알뜰하고 행복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4월 '원당전 벚꽃축제'를, 5월에는 '영주선비문화축제'와 '소백산철쭉제'를 개최한다. 전상기 기자

이철구, 성숙한 정치문화... 3급 직원 신설 뿐

광역의회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 無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 운영, 당면 현안 상황

이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시도의회 3급 직원 신설을 강력 건의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회(회장 이철구)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 이 같이 건의했다. 정기회에서 이철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



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광역의회 3급직위 신설 건의안'은 모든 광역의회가 원하는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구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숙원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인데, 월 1회 정기회를 열고 있다. 정성명 기자

경북농업기술원, 고기능성 오미자 신제품 2종 개발

개발된 오미자 신제품 생산성이 높고 다양한 기능성 성분 균일 함유

경북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가 오미자 신제품 '썬레드'와 '한오미' 2종을 개발했다. 2년간의 재배실험을 완료한 뒤 올해 농가에 보급한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오미자 신제품은 생산성이 높고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균일하게 함유하고 있어 생산 농가, 산업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앞으로 식품소재나 치료제로 산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우수 약용작물 품종육성과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미자는 배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생하는 대표적인 약용작물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



한오미



썬레드

고 있다. 오미자에 풍부한 리그난 성분은 간 기능 강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미자 추출물이 지방세포 분화억제 및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봉화약용작물연구소는 2014년부터 문경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오미자 품종육성을 시작해 이번에 이들 2종을 개발했다. '썬레드'는 8월 말 조기 수확이 가능한 중과 품종으로 추수 전 열리는 오미자 축제기간에 맞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고 기능성 성분인 시잔드린(schizandrin)이 풍부해 피부미용에도 큰 효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오미'는 대과 품종으로 상품성이 뛰어나고 가공용으로 적합해 신제품으로 재배하면 기존 3~4회 수확하던 것을 균일 종자의 특성상 일시에 수확할 수 있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품질과 기능성 성분이 균일해 식품이나 약용 원료로서의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용 기자

의성군,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 우뚝

드론 활용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선정나서

의성군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 지원한다. 군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국가시설인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와 연계한 통합 대(對)드론 시스템 개발 및 불법 비행드론 대응 체계 실증, 의성군 특화 드론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드론 활용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 기반 구축 실증을 수행한다.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 과수 농업의 드론 최적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의성군과 경운대학교가 사업을 총괄 관리·지원하며, ㈜한컴인스페이스, ㈜삼정솔루션, ㈜유

맥에어, ㈜나르사텍이 민간기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오는 11월까지 실증사업 추진, 행정·기술·인력 지원, 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해 나간다. 앞서 의성군은 관·산·학 추진협의체 운영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자체 드론 실증사업 추진, 항공산업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국가시설인 드론비행시험센터 준공, 가음면 드론스포츠 센터 운영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는 의성 공항공신도시가 전국 최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돼 자율주행, 도심항공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역으로 구현됨으로써 이동성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작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과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을 연계, 의성군이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이철우, 저출생 극복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105주년 3·1절 기념식 행사 굳은 기개 세계만방에 떨친 자긍심 품고 미래 번영 함께

경북도는 1일 도청 동극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배한철 도의회의

장, 임종식 도교육감,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도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지사는 기념사에서 "5천 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이 미래 5천 년의 역사도 온전히 기워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선봉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마을이 독립운동을 하고, 근면자조 협동으로 '새마을' 일궈낸 것처럼 이제는 '온 마을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저출생 극복 제2의 새마을운동

으로 확산, 대한민국의 제5대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경 출신의 3·1운동 독립유공자 확인되고 (故) 백억출 선생님의 외손녀 정정숙씨(75)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도민과 공무원 10명은 도지사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만세 함창으로 105년 전 그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추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5천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이 미래 5천년의 역사도 온전히 기워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선봉에 섰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DAEGU

MARATHON 2024

April 7th(Sun) 08:00 Start

Start & Finish
35°49'56.4"N, 128°41'24.9"E

접수기간 | ~ '24. 3. 8.(금) 18:00 교통통제 | 07:30 ~ 14:00 * 구간별 통제 시간은 상이함

2024대구마라톤대회

엘리트 풀코스 | 마스터즈 풀코스 | 풀코스릴레이 | 10km | 건강달리기



4.7. (일) 08:00 대구스타디움 및 시내일원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 후원 | DGB대구은행 | CRETEC 크레텍 | 대성에너지(주) | 농협 | 한국장학재단 | MEDI-CHECK | 500 | KEIT | 한국관광공사 | 주관 방송사 | KBS |

| 협찬 | ktDI | t'way | 대구현지법인 *대구신세계 | 공식 스포츠 웨어 | GOALSTUDIO | 물류 지원 | coupang | 의료 지원 |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 협력 | 대구경찰청

| 주최 | 대구광역시 / 대한육상연맹 | 주관 | 대구광역시체육회 / 대구육상연맹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청사 대구마라톤 사무국 | 문의 053)803-6185~9 | E-mail daegurace@daegurace.com